

광주서 세계적 ‘반도체 설계 인재’ 키운다

GIST-Arm, 업무협약 체결…5년간 인력 1400명 육성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첨단산업 정책 핵심거점 부상

광주에 세계적 반도체 설계기업인 Arm (Arm)의 인재양성소가 들어선다. 광주시는 11일 광주과학기술원 (GIST)에서 세계 1위 반도체 설계 지적재산권 (IP) 기업인 영국 암 (Arm)과 GIST가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임기철 GIST 총장, 황선욱 Arm 코리아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설립되는 ‘지스트-암 (GIST-Arm) 스쿨’은 향후 5년간 총 1400명의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적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의 핵심 지적재산권 (IP)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도입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육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Arm IP 기반 반도체 설계 교육과정 공동 기획 △교육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공동 기획 및 협력 △

Arm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교육·연구 콘텐츠 및 자료 활용 △산업·연구 프로젝트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설계·운영 협력 △교육 성과에 대한 인증 및 공식 수료 인정 방안 논의 등이다. 영국에 본사를 둔 Arm은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반도체 IP 기업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과 서버,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을 모기업으로 두고 있다. 시는 GIST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Arm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결합해 광주를 글로벌 산학협력의 성공 모델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임기철 GIST 총장은 “GIST-Arm 스쿨은 설계 중심 교육을 넘어 인공지능 반도체 실증으로 확장되는 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선욱 Arm 코리아 대표는 “광주과학



강기정 광주시장이 11일 오후 광주과학기술원 (GIST)에서 열린 영국의 반도체설계기업 암 (Arm)과 광주과학기술원 (GIST)의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MOU)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기술원과의 협력이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 강화와 미래 인재 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광주·부산·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의 한 축으로, 인공지능 (AI)과 미래차 등 국가

첨단산업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GIST-Arm 스쿨이 세계적 반도체 인재양성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국가 NPU 전용 컴퓨

팅센터 광주 설립 △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센터 구축 등 핵심 사업과 연계해 반도체 분야 인재양성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 △반도체 특성화대학 (전남대) △반도체 첨단패키징 전문인력 양성 (조선대)

△삼성전자 계약학과 (GIST) 등 교육·연구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번 ‘GIST-Arm 스쿨’ 설립을 통해 반도체 인재양성의 전 주기 사다리를 완성하게 된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흡입력 2배·스팀살균’…삼성, AI 로봇청소기 출시

고도화된 주행 성능·강력한 보안 솔루션까지 갖춰
구매·설치·제품 관리·AS까지 원스톱 설치 서비스

삼성전자가 한국 가정에 최적화된 2026년형 ‘비스포크 AI 스티م’ 로봇청소기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울트라·플러스·일반형 3개 라인업으로 출시되며, 강력한 흡입력과 AI 기반 고도화된 주행 성능, 독보적인 스티م 살균 기능에 강력한 보안 솔루션까지 두루 갖췄다. 먼저 울트라와 플러스 모델은 기존 대비 최대 2배 더 강력한 10W 흡입력을 갖춰 미세먼지는 물론 머리카락까지 깨끗하게 흡입할 수 있다. ‘뽀아웃 물결레’로 벽면까지 밀착해 걸레질하고, 모서리와 구석의 먼지는 ‘뽀아웃 사이드 브러시’가 확장돼 더욱 꼼꼼하게 흡입한다. 또 이번 신제품은 최대 45mm의 단일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이지패스 휠’이 적용돼 매트나 문지방이 있어도 자유롭게 주행하며 청소한다. AI 사물·공간 인식 기능도 진화했다. 제품 전면에 탑재된 RGB (Red, Green, Blue) 카메라 센서와 적외선 (IR) LED를 통해 유색 액체는 물론 물처럼 투명한 액체까지 회피하거나 집중 청소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됐다. 청소 후의 위생 관리도 간편해졌다. ‘스티م 정정스테이션’은 100℃의 스티밍

로 물결레 표면의 세균을 99.999% 살균하고 냄새까지 제거해 물결레를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또 물결레 세척판의 먼지와 오염물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셀프 클리닝 세척판’이 새롭게 적용됐다. 특히 이번 신제품은 물통을 채우거나 비울 필요 없는 ‘자동 급배수’ 모델을 갖춰 한층 더 편리한 청소 경험을 제공한다. ‘자동 급배수’ 모델은 자동으로 깨끗한 물을 급수하고 청소 후에는 오수를 배수관으로 바로 배출한다. 또 삼성전자는 구매 고객에게 설치, 제품 관리, AS까지 독보적인 전문성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들은 삼성전자 가전 구독 서비스 ‘AI 구독클럽’을 통해 ‘비스포크 AI 스티م’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편리하게 만나볼 수 있다. ‘AI 구독클럽’으로 ‘비스포크 AI 스티م’을 구독 시 교체 주기에 맞춰 본체와 청정스테이션의 소모품을 정기적으로 배송받는 ‘셀프케어’. 전문가가 방문해 제품 진단부터 내·외부 세척을 포함한 종합 점검과 케어를 제공하는 ‘방문케어’ 서비스 중 선택할 수 있다. 또 구독 기간 동안 무상수리 서비스도



삼성전자가 한국 가정에 최적화된 2026년형 ‘비스포크 AI 스티م’ 로봇청소기를 출시했다

제공된다. ‘AI 구독클럽’은 전국 삼성스토어 및 삼성닷컴에서 가입 가능하다. 특히 삼성전자는 로봇청소기 구매 고객들에게 리폼한 가구장을 기존대로 원상 복구할 수 있는 ‘리폼장 원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삼성전자는 전국 169개 서비스센터 가운데 117개 센터에 로봇청소기 전담 서비스 인력을 확충해 업계 최대 규모의 로봇청소기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고객은 더욱 편리하게 제품 점검과 AS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 네이버 온라인 매장에서 ‘비스포크 AI 스티

울트라’ 모델의 사전 판매를 실시한다. 사전 구매한 고객에게는 12만원 상당 액세서리 키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다음 달 3일부터 ‘비스포크 AI 스티م 울트라’와 ‘비스포크 AI 스티م 플러스’ 2개 라인업을 정식 판매하며, ‘비스포크 AI 스티م 일반형’은 4월부터 판매한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임성택 부사장은 “이번 신제품은 흡입력과 위생 솔루션 등 로봇청소기가 갖춰야 할 핵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보안으로 고객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K-로봇청소기”라며 “믿고 맡길 수 있는 삼성전자만의 안심 서비스로 로봇청소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성장 지원 투자연계 ‘창업-BuS’ 전국으로 확대

중기부 ‘스타트업 투자 유치 지원 사업’ 전국 17곳서 운영

중소벤처기업부가 딥테크 스타트업 투자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투자유치 특화형 지원사업인 ‘창업-BuS (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을 올해 전국 17개 혁신센터에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혁신센터가 지역 유망 딥테크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부터 후속 투자 연계까지 지원하기 위해 2024년 5월

처음 시작했다. 같은 해 5개 혁신센터 (경기·인천·충북·광주·울산)의 시범운영 이후 이듬해 신규 3개 센터 (강원·경남·제주)를 추가했다. 올해에는 프로그램을 모든 센터에서 운영한다. 창업-BuS는 지역 유망 스타트업을 상시 발굴해 3개월 이내에 초기투자, 6개월 이내에 TIPS, 12개월 이내에 후속투자 연계까지 신속한 지원을 목표로 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혁신센터에 구축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부터 투자까지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재작년에 이어 작년도에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 지난해 8개 센터에서 1089개 기업을 발굴했고, 그중 288개사에 대한 액셀러레이팅을 거쳐 총 123개사가 약 565억원에 이르는 직·간접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개소 이후 2개월간 법무·세무·경영·창업 정보 등 총 4200여건의 상담을 수행했다. 3월에는 온라인 상담 창구도 개설·운영

할 계획이다. 5월에는 전국 혁신센터들이 5개의 권역으로 나눠 광역권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10월에는 모든 혁신센터가 참여하는 전국 단위 투자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창업-BuS 플랫폼을 통해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투자를 통한 신속 성장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다”며 “더불어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하고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온디바이스 AI반도체 공동 개발 착수

산업부, 5년간 1조원 투자
김 장관 퓨리오사AI 간담회

2조 규모 반도체 특별회계
4.5조 상생파운드리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 (AI)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조원 규모의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공동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 올해 안에 2조원 규모의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민간 합동 4조5000억원 규모의 상생 파운드리 구축을 검토하는 등 AI반도체 실증·양산·확산을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11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AI반도체 핵심기업 성장전략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퓨리오사AI를 비롯해 텔레칩스, 리벨리온, 딥엑스, 모빌린트, 하이퍼엑셀 등 국내 AI반도체 (NPU) 기업과 학계·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빅테크 중심으로 AI반도체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수요 확보와 초기 실증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성장 사다리가 약화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스마트가전, 휴머노이드, 무인기 등 첨단 제품에 탑재할 국산 AI반도체를 주력 제조 앵커기업과 국내 팹리스가 컨소시엄 형태로 개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산 AI칩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기업의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고, 국산 칩 적용 사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을 신속히 제정해 국산 NPU의 공공부문 활용을 확대한다. 공공 수요를 기반으로 초기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민간 시장 확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 팹리스 업계의 병목으로 지적돼 온 파운드리 접근성 문제도 개선한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11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AI반도체 핵심기업 성장전략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중앙기적으로 4조5000억원 규모의 12인치 40nm (나노미터) 상생 파운드리 구축 가능성도 검토한다. 재정·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산업부는 연내 2조원 규모의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팹리스 전용 투자펀드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시간 제약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스케일업과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지방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확충을 추진하고, 설계 인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IP 기업 커리큘럼을 도입한 ‘Arm 스쿨’을 연내 설치한다. 이와 함께 차량·전력·통신·국방 등 분야에서 수요가 높고 있는 ‘미들텍 (Middle-tech) 반도체’ 지원도 강화한다. 화합물 전력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앵커 수요기업과 연계한 대형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연합뉴스